

‘화물차 충돌 뒤 파손’ 광주 수창육교 51년 만에 철거 수순

4.3m 높이 하부 구조물 파손...긴급 안전진단서 철거 결정

보행육교 건립 운동 일환으로 1970년 기공, ‘역사 속으로’

2등급 크레인 설치 화물차(너클크레인) 충돌 사고로 구조물 일부가 파손된 광주 수창육교가 50여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는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북동 수창육교에 A(65)씨가 몰던 2등급 크레인 설치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약 4.3m 높이 교량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손돼 도로로 추락했고, 교량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했다.

행정당국은 곧바로 차선 통행을 막고 부서진 교량 구조물을 절단했으며, 구조물 추가 추락 우려에 대비해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다. 이어 곧바로 긴급 구조 안전진단을 벌여 철거 결정을 내렸다.

앞선 2014년 3월 수창육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구조물 균열이 발생, 철거가 일시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8시부터 육교 인근 왕복 6차선 도로(금남로5가~유동사거리)의 통행을 전면 통제했

다. 철거 공정은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철거가 결정된 수창육교는 1969년 4월 광주 동구 중앙초등학교 앞 등 곳곳 뺑소니 교통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진 보행 육교 건립 운동의 연장선에서 지어졌다.

1970년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수창육교는 1972년 완공됐다. 기공 시점을 기준으로 51년, 완공 49년 만의 철거일 셈이다.

행정당국은 육교 철거를 마치는 대로 횡단보도·신호기 등 대체 도로 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창육교 철거가 마무리되면 광주 시내 육교는 총 67곳으로 줄어든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4곳 ▲서구 15곳 ▲남구 9곳 ▲북구 18곳(시립미술관 앞 육교 포함) ▲광산구 21곳 등이다.

한편, 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화물차 적재함에 철근 더미가 가득 실려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냐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 A씨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준수사항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북동 모 초등학교 앞 육교에 건설 중장비인 집게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약 4.3m 높이 교량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손돼 도로로 추락하고 일부 균열이 발생, 행정당국이 응급 복구에 나섰다.



‘연탄의 계절’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1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연탄배급소에서 직원이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연탄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청암대 뷰티미용과·간호와 교수 위증죄 등 징역형 선고

3년여 동안 재판 받아 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같은대학 교수에 대한 위증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순천청암대 뷰티미용과 A교수에 대해 위증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대학 간호과 B교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

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두 교수는 특정 피해 교수들에 대한 조직적 범죄로 10여개 죄가 병합돼 지난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음해와 피해교수들에 대한 개인사찰, 개인이력서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특히 A 교수 등은 재학생들을 시켜 졸업한 선배들에게 피해 교수들의 실습재료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

게 한 혐의도 있어 교수 자질론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시 교수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160시간씩이나 부과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 죄질을 아주 나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주서 택시기사 코로나19 돌파 감염...중학생도 확진

접종 완료 두 달만에 감염

광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70대 택시기사가 코로나19에 돌파 감염됐다.

1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70대 개인 택시기사 A씨가 전날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의 K5 진회색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이 기간 해당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안전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각각 지난 6월과 8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 2차 접종을 마쳤으며, 접종 완료 두 달 만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누적 돌파감염자는 668명으로, 이 중 269명은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됐다.

광주에서는 또 학생 감염 사례도 나타났다. 광산구 모 중학교 1학년생 B양의 경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기동취재본부

‘찍거나 상한 제품 배송’ 외면받는 농협 쇼핑몰 ‘농협몰’

소비자 불만 9210건·휴면회원 76%↑...매출 감소

농협의 인터넷 쇼핑몰 ‘농협몰’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찍거나, 상한 제품이 배송돼 접수된 농협몰의 ‘불만족 민원’이 9210건에 달했다.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과 농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신선하고 믿을직하고 만족스럽게’란 농협의 홍보와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농협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농축산물 위주의 판매가 아닌 사무용품과 생활품의 판매가 절반가량(42.9%)을 차지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꾸러미 사업을 통해 매출은 반짝 상승했으나 주력상품인 농축산물의 매출 저하로 농협몰 전체 매출은 덩달아 하락했다.

게다가 농협몰의 재구매율도 떨어지다 보니 휴면회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495명이던 휴면회원 수도 지난 5월 66.9%가 증가한 745명에 이르고 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